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액보험 투자 정보 가이드

변액보험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펀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됩니다. 카디프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금융시장 전망 등을 확인하고 변액보험을 관리해보세요!

CARDIF GUIDE <2017.11>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 본 자료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제공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및 투자결과에 대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5048호(2017. 11. 3)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 경기개선에 따른 모멘텀과 통화 정책 정상화 부담 상존

글로벌 자산군 선호도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01

국내 주식

IT 업종 중심의 실적 개선은 긍정적이거나 차익실현 욕구 등으로 주가상단 제한 가능

- 단기: 이머징에 대한 투자심리가 견조한 가운데 IT 중심의 실적 호조 지속은 긍정적. 다만 북한 관련 지정학 리스크와 차익 실현 욕구 등이 맞물리며 주가상단 제한 가능
- 중기: 증시 상승세를 주도해 왔던 IT 업종의 실적 개선 흐름 지속 여부 주목.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의 필요

02

국내 채권

기준금리 인상 신호에 부진하나, 급등세는 다소 진정될 전망

- 단기: 금융위원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기준금리가 낮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차례 금리인상은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됨. 11월 채권시장은 과도한 통화긴축 가능성을 선반영했다는 인식으로 금리급등 흐름이 다소나마 진정될 전망
- 중기: 한은의 향후 성장률 전망치에는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며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금리인상 횟수는 한 차례에 그칠 전망

03

선진국 주식

미국은 상승 모멘텀 둔화, 유럽은 견조한 경기 흐름에 상대적 강세 전망

- 미국: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양호한 펀더멘탈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 개편 관련 기대감 가세한 점은 증시에 우호적. 다만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시점 압박해 증시상단 제한 가능
- 유럽: 정치적 안정 및 유로화 강세 압력 완화에 따른 유럽증시 반등 긍정적. 다만 최근 기업 이익 전망이 다소 꺾인 점은 추가 상승폭 일부 제한 가능

04

신흥국 주식

이머징 위험 자산의 완만한 상승 전망

- 인도: 글로벌 경기 개선과 함께 위험자산 선호심리와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가지수 상승 가능성.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 확대와 12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부담
- 중국: 중국 경기 및 물가는 개선 흐름. 이에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확대되며 주가지수의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2기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긍정적

05

해외 채권

경기지표 개선 및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채권시장 약세 압력

- 단기: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통화정책 정상화를 반영하며 시장 금리 오름세 예상. 경기 여건 개선 및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역시 채권 시장에 부정적
- 중기: 연준의 자산채투자 종료 및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은 채권시장 약세 압력. 다만 경기 및 물가 둔화 나타날 경우 정상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 약세폭은 가파르지 않을 전망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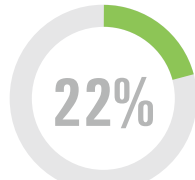
원자재

원유는 수요 개선 전망에 초과 공급 우려 완화, 금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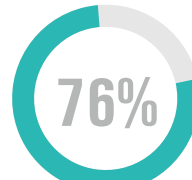
- 유가: 미국 원유 시추공과 생산량 증가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글로벌 원유 수요 개선 전망이 높아진 점은 초과 공급 우려 완화 요인. 다만 유가 반등 시 미국이 증산 가능해 상단은 여전히 제한 예상
- 금: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은 금 가격에 부정적. 북한, 카탈루냐 등 리스크 요인은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안정추구형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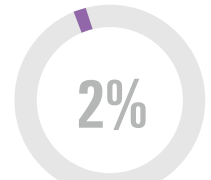
투자손실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입니다. 그래도 자산 중 일부는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마음은 필요합니다.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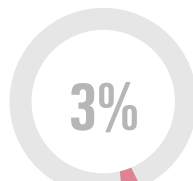
유동성자산

위험중립형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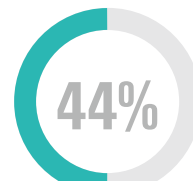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자세를 갖고 있는 고객입니다. 고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적절한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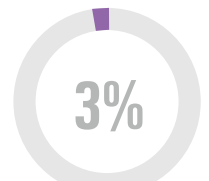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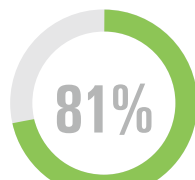
국내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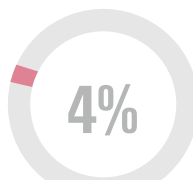
유동성자산

성장추구형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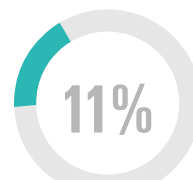
높은 기대수익을 위해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고객입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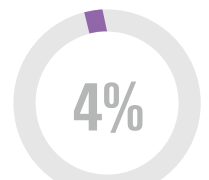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국내채권형



유동성자산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국내	주식	+	이머징에 대한 투자심리 건조한 가운데 IT 중심의 실적 호조 지속은 긍정적. 다만 북한 관련 지정학 리스크와 차익 실현 욕구 등이 맞물리며 주가상단 제한 가능	증시 상승세를 주도해 왔던 IT 업종의 실적 개선 흐름 지속 여부 주목.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의 필요
	채권	=	금통위원들이 전반적으로 '현재의 기준금리가 낮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차례 금리인상은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며, 11월 금통위에서의 인상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음. 하지만 향후 금리인상은 긴축기 조로의 본격 전환보다는 통화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차원의 금리인상일 가능성이 높음. 11월 채권시장은 과도한 통화긴축 가능성을 선반영했다는 인식으로 금리급등 흐름이 다소나마 진정될 전망	다음을 감안하면 내년 1Q까지 총 금리인상 횟수는 1차례에 그칠 전망이다. 1) 한은의 향후 성장률 전망치에는 하방 Risk가 존재하며 2) 첫 번째 금리인상 이후로도 기초적 통화긴축이 지속 가능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최근의 채권수익률 급등으로 시장은 1차례 기준금리 인상 뿐만 아니라 향후 통화긴축 속도가 가팔라질 가능성도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과매도 인식으로 점차 대기매수세가 유입되며 향후 6개월간 채권시장은 박스권 등락 전망
해외선진	미국	=	경기 회복세 이어지며 양호한 펀더멘탈 흐름 보이는 가운데 세계 개편 관련 기대감 가세한 점은 증시에 우호적. 다만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시점 압박해 증시 상단 제한 판단	세계 개편 효과가 어느 정도 선반영된 가운데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할인율 상승이 밸류에이션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여타 선진국 대비 오름폭 제한될 전망
	유럽	+	정치적 안정 및 유로화 강제 압력 완화에 따른 유럽증시 반등 긍정적. 다만 최근 기업 이익 전망이 다소 꺾인 점은 추가 상승폭 일부 제한 가능	금융주 비중 높은 유럽증시에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우호적으로 작용 가능. 시장금리 반등 환경에서 선진국 내 상대 성과 양호할 전망
	일본	=	연준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일본은행의 완화적 정책 기조 유지되며 엔화 약세 보이는 점은 긍정적. 다만 단기 오름세 가팔랐던 만큼 속도 조절 가능성 상존	선진국 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 이익 전망과 밸류에이션 매력은 긍정적. 다만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가 쉽지 않은 가운데 아베 정권 우경화에 따른 지정학 리스크는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해외이머징	브라질	=	경기 회복과 위험자산 선호 지속, 정부의 기업 우호적 정책은 긍정적이나,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둔화는 주가지수 상승세를 약화시킬 전망	글로벌 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에 브라질 기업들은 실적 개선 보이며 주가지수 완만한 우상향 흐름 보일 전망.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 벨류에이션 부담은 부정적인 요인
	러시아	=	글로벌 유가가 박스권 움직임 보임에 따라 러시아 RTS 지수도 제한적으로 움직일 전망.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는 긍정적으로 작용	글로벌 유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기업 이익 회복세도 둔화되며 주가 지수 큰 폭의 상승은 쉽지 않을 전망. 다만 신흥국 밸리 과정에서 투자 매력도는 지수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
	인도	+	글로벌 경기 개선과 함께 위험자산 선호심리와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가지수 상승 가능성. 다만, 벨류에이션 부담 확대와 12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부담	경제지표가 견조한 가운데, 모디 정부의 개혁 노력이 구체화되는 점 긍정적.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과 함께 중기적으로 주가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다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서 인도의 높은 벨류에이션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아세안	+	글로벌 경기 개선에 위험자산 선호심리 높아지며 아세안 주식시장 밸리도 이어질 전망. 다만 아세안 시장이 달려와 움직임에 다소 민감한 가운데, 연준의 자산 축소는 부담 요인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세 및 원자재 수입 증가, 이에 따른 수출 증가 영향으로 기업들 실적 호조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 다만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따른 대외 리스크는 부정적
해외이머징	중국	+	중국 경기 및 물가는 개선 흐름. 이에 중국 기업들의 실적 확대되며 주가지수 완만한 상승 이어질 것으로 판단.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2기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긍정적	중국 경기 개선과 이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우호적. 중국 본토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 지속될 전망. 다만, 당대회 이후 경제공작회의 전인대로 가면서 공급측 개혁 및 금융시장 규제가 점차 구체화될 것이란 우려는 지수 상단을 다소 제한할 전망
	홍콩	+	중국 경제 및 주식시장 호조에 홍콩 주식시장도 완만한 상승 전망. 글로벌 금리 상승 움직임은 홍콩에서 비중 큰 은행업종에 우호적	중국 본토 주식시장의 우호적 환경에 동반 오름세 기대되나, 중국 19차 당대회 이후 금융시장 규제 강화 가능성은 부담
해외채권	채권	-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통화정책 정상화 반영하며 시장 금리 오름세 예상. 경기 여건 개선 및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역시 채권시장에 부정적	연준의 자산채투자 종료 및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은 채권시장 악세 압력. 다만 경기 및 물가 둔화 나타날 경우 정상화 속도 늦어질 수 있어 악세폭은 가파르지 않을 전망
대체투자	유가	=	미국 원유 시추공과 생산량 증가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글로벌 원유 수요 개선 전망이 높아진 점은 초과 공급 우려 완화 요인. 다만 유가 반등 시 미국 증산 가능해 상단은 여전히 제한 예상	OPEC의 생산 조절 노력과 수요 증가 전망은 긍정적이나 미국 생산 확대 부담이 유가 상단을 제한하는 흐름 연장 가능. 기존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금	=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은 금 가격에 부정적. 북한, 카탈루냐 등 리스크 요인은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반등 과정에서 헤지 수요 유입 가능. 금 가격 제한적 등락 흐름 예상

EUROSTOXX50 지수

글로벌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미 연준은 9월 FOMC를 통하여 10월부터 자산긴축 시작을 선언하였으며,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9월 유로존 종합PMI는 56.7로, 8월(55.7) 대비 개선되는 등 하반기 들어서도 경기회복세는 지속되었습니다. ECB는 9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하여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2%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HSCEI 지수

중국은 하반기들어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투자 관련 성장지표는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 관련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 S&P는 중국 과잉부채 위험을 지적하며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하반기에도 긴축적 통화관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KOSPI200 지수

9월 수출은 전년대비 3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10월 장기연휴에 대비하여 조기통관이 이뤄진 점이 9월 수출 증가의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2.1% 상승하였습니다. 수출중심의 경기회복세 지속, 2% 내외의 물가상승률 및 올해 12월로 예상되는 미국 추가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내년 1/4분기 중 한은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제공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어려운 용어... 한숨 쉬지 말고, 쉽게 알아보아요!

밸류에이션(Valuation)?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평가 가치를 이야기하며, 주식의 경우 PER(주가-순이익 비율)이나 PBR(주가-순자산가치 비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산업 군 안에서도 순이익 규모나 순자산 가치에 비하여 특정 주식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Fundamental)? 기업이나 경제의 기본기를 이야기하며 기업의 경우, 실적이나 순이익, 경제의 경우 성장성이나 안정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기업이나 경제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이 개선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OPEC(석유수출국기구,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1960년 9월 원유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 · 이란 ·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 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 · 수출국 대표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입니다. 회원국들은 국제석유가격 조정 및 회원국 간의 협력을 도모합니다. 결성 당시 목적은 원유 공시가격의 하락을 저지하려는 것이었으나, 가격정책 외에 석유이권의 국유화, 자원의 보호, 각종 석유산업에의 진출, 석유시대 후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중동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 아랍에미리트연합 · 카타르 · 이란 · 이라크), 아프리카 4개국(나이지리아 · 리비아 · 알제리 · 앙골라),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 13개 산유국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BNP파리바 카드프생명의 ELS 변액보험 상품 및 ELS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주식회사 두물머리에서 운영하는 ELS리서치 (<http://elsresearch.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섯가지 방법

투자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좀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피할수 없이 직면해야 할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투자시장이 지닌 이러한 기본적인 위험은 경험이 적은 투자자 뿐만 아니라 오랜 경험을 가진 투자자와 심지어 기관투자자들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투자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5가지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1 구체적인 투자목표를 세울 것 1

투자목표를 사전에 세워놓지 않으면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느 누구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식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때로는 손실폭이 30%, 40% 혹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투자목적과 투자기간을 설정하고 감내할수 있는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투자한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1 적절히 분산투자 할 것 1

계란을 한바구니 담게 되면 모두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듯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에 집중투자하는 경우 시장의 하락, 특히 특정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주식, 채권, 예금 등과 같이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섹터별로도 다양한 시장에 노출된 포트폴리오를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반적인 주식, 채권 뿐만아니라 원자재, 부동산펀드와 같은 대체투자수단 및 손실을 방어해주는 구조화된 증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을 적절히 섞어 준다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추면서 수익률을 보다 향상할 수 있습니다.

1 잡음에 흔들리지 말 것 1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 수많은 투자 관련 뉴스와 지표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설사 10년, 20년의 투자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루이틀 사이에 벌어지는 가격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투자자가 한달안에 환매를 하고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작은 시장 움직임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예측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5년, 10년, 더 길게는 그이상의 투자기간을 바라보면서 당장 오늘의 뉴스와 가격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당장의 시장 움직임은 장기적인 투자목표와 크게 상관없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심리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목표에 집중하기 어렵게하는 요인입니다. 투자기간과 상관없이 과감히 오늘 아침의 뉴스와 당장의 시장가격의 움직임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1 다수를 쫓아가지 말 것 1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따지기 보다는 좁게는 내 주변사람, 넓게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자금이 몰리는 곳에 투자할때 보다 확신을 얻고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행태재무학에서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투자 행태를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고, 다수가 따르는 의견이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할 것입니다. 어쨌든 다수를 따라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투자시장에서는 다수를 쫓을 때 위험이 훨씬 커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의 특정자산에 과도한 집중은 자산가격 버블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1 충분한 현금을 보유할 것 1

시장의 변동성 위험에 대처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순간이 발생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변동성이 높은 투자자산에 넣는다면 갑작스럽게 유동성이 필요한 순간에서 원하지 않게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투자할지 결정하는 순간에 적어도 3-6개월간의 생활비는 현금이나 쉽게 현금화 할수 있는 계좌에 넣고 단기에 목돈이 필요하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 ELS 리서치 (<http://elsresearch.com>)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 하나로
편리하게 계약관리 할 수 있습니다.
장소 구매 없이
MY카드프 APP에 접속!



MY카드프 APP
다운 받으세요!



▶ 검색창에 카드프생명 또는 마이카드프 입력 후 검색
▶ 설치버튼을 눌러 설치 실행

글로벌 시장 상황 파악

이번 달 핫이슈 및 자산시장별 투자 전략 참고

STEP 01

나에게 맞는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 성향별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STEP 02

펀드 관리

수익률 관리, 투자위험 최소화를 위해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기능 활용

STEP 03

🔄 펀드 변경 안내

변경 유형



적립비율 변경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적립비율을 변경



투입비율 변경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적립비율+투입비율 변경

계약자적립금의 적립비율과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변경 방법



My Cardif

홈페이지 방문 : www.cardif.co.kr
APP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카디프 생명' 또는 '마이카디프' 검색



은행/보험사 방문

보험을 가입하신 은행 또는
보험사에 직접 방문 후
펀드 변경 신청

기준일 「펀드 변경 요구일 +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 적용
*영업일 기준은 개별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 횟수 연 12회 이내 가능

수수료 없음(다만, 차후 약관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 가능)



📌 변액보험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액보험 계약은 중도해지 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